

책 읽고 전시 감상... ACC는 '최고 도서 휴가지'

도서추천서비스 공간
2개월마다 인문교양서 추천
전자책으로 200점 명화 감상

책 쉼터·대나무 정원
오디오북·컴퓨터 등 활용 휴식
사유정원 등 무료 전시도 즐겨



도서·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한 ACC 도서관이 올 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ACC 제공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고 마음의 양식도 쌓을 수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힐링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도서관은 7만여권에 이르는 각종 도서와 부드럽고 세련된 실내 디자인, 웅장한 공간과 트인 전망, 대나무정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자랑한다.

ACC 도서관은 2900㎡ 규모로 △서거△도서추천서비스 공간(북큐레이션홀) △책 쉼터(북라운지) △정기간행물 공간 △대나무 정원 등으로 이뤄졌다.

ACC 서거에는 아시아 국가와 권역별로 예술·역사·도시문화 등을 주제로 한 전문도서와 문화예술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교양도서가 구비돼 있다. 방문객은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고 가까운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시각과 청각 약자는 독서확대기와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컴퓨터, 공공보청기(소리증폭장치) 등 독서보조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큰 글자도서와 점

자책도 갖추고 있다.

도서추천서비스 공간에선 2개월마다 아시아문화예술을 주제로 선별한 책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문교양서를 전시한다. 최근 세련된 전용 서가와 의자로 새 단장한 이곳에선 현재 '아시아 향신료와 음식'을 주제로 아시아 음식문화를 다룬 도서와 흥미로운 역사 관련 도서를 각각 40권씩 소개하고 있다. 오는 7~8월엔 '아시아 언어와 소리' 관련 전문 주제 도서와 본격적인 휴가철

추천할 예정이다.

도서추천서비스 공간과 이어져 예술 감상 함양을 위한 곳도 마련했다. 이곳엔 200여점의 명화를 한 자리서 감상할 수 있는 TV형태의 전자책자(디지털 액자)와 복합매체 작품이 전시돼 작은 미술관 서재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흡음 장치가 있는 공공전화박스 형태의 편의시설도 설치해 이용객이 소음 걱정 없이 도서관 내에서 편하게 통화할 수 있다.

책 쉼터는 책과 함께 휴식하는 공간이다. 은은한 간접조명 아래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다. 진화형 책상과 의자가 있어 책임기와 개인 연구도 가능하다. 소리책 무인안내기(오디

오북 키오스크), 전자(디지털) 신문대, 학술·예술영상 자료 검색 및 열람을 위한 컴퓨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곳곳에 콘센트와 유에스비(USB) 단자를 구비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충전도 가능하다.

정기간행물 공간에선 100여종이 넘는 국내외 유명 잡지와 신문을 만나볼 수 있다.

대나무정원과 아래층으로 연결하는 계단(북라운지 선권계단)은 독서, 휴식, 강연 등이 가능한 장소다.

대나무 정원으로 향하는 휴식 공간은 카페를 연상케 하는 예쁜 조명과 편안한 의자와 탁자, 식물로 꾸며져 방문객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대나무정원은 책을 보다 잠시 쉬면서 명상에 잠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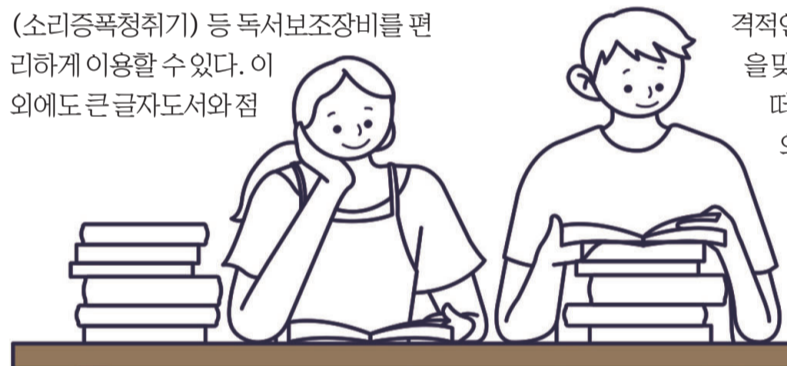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한 층만 위로 올라가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준비해 있다.

기획전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8월 27일, 복합전시 2관)와 '견기, 해매기'(~9월 3일, 복합전시 3·4관)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한 복합전시 1관에선 기획전 '물입미감: 디지털로 본 미술 속 자연과 휴머니즘'(~10월 15일)이 진행 중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는 도서관이 책과 시민의 일상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길 기대하며 공간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ACC 도서관을 공동체 공간이자 문화와 어울림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CC 도서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도선인 기자



올 여름 국내·외 30여개 팀 월드뮤직 향연

ACC재단 월드뮤직페스티벌
8월25일부터 장기하·낙살 등

올해 14회째를 맞는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올 여름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대규모 라인업을 공개하고, 관람권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8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ACC 예술극장과 열린마당, 아시아문화광장 등에서 '2023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담은 음악 축제다. 2010년부터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행사다.

올해 축제에는 국내·외 최정상급 및 신진 아티스트 30여개 팀이 참가해 기존에 접하기 힘든 세계 각국의 월드뮤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가수 장기하를 필두로 △낙살 △디핑크 △송소희 △첼로가야금 △마더바이브 등의 무대가 마련된다.

해외에서는 △타이완의 스몰 아일랜드 빅 송(Small Island Big Song) △쿠바의 브렌다 나바레트(Brenda Navarrete) △포르투갈의 안나 루아 카이아노(Ana Lua Caiano) △아일랜드의 다니 랄킨(Dani Larkin) 등이 참여한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싱가포르, 대만, 하



와이, 타이티 등 섬 지역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전통 악기로 그들의 독특한 전통 음악을 선보인다. 또 바스크 지역의 전통악기 잘라파르타 연주, 네덜란드의 포크, 쿠바의 타악 등도 만나 볼 수 있다.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에서만 볼 수 있는, 국경과 장르를 넘어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핑'의 연합 무대도 펼쳐진다. 다만 월드뮤직페스티벌과 ACC가 협력해 만든 콜라보 공연과 국악을 중심으로 만든 ACC만의 기획 프로그램도 볼거려다.

2023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일부 유료로 진행된다. 또 오는 7월21일까지 한달 동안 사전 예매(얼리버드 티켓)시 500석에 한해 3일권을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1일 권 등 일반 관람권은 얼리버드 티켓 판매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구매 가능하다.

한편 ACC재단은 2023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함께 이끌어나갈 축제의 꽃인 자원봉사자 '유펜반디'를 오는 7월2일까지 모집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오늘부터 토요일 가무악회 '그린국악' 팡파르

도립국악단, 남도소리울림터서
줄타기·무용공연·인문학 강연 등

전남도립국악단이 24일부터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에서 토요일 가무악회 '그린국악' 특집공연 3편을 잇달아 무대에 올린다.

먼저 24일에는 줄타기계 아이돌 남창동의 '인생 줄타기'가 펼쳐진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청년 이름사니(줄 타는 사람을 이르는 말) 남창동은 국내 유일의 '360도 거꾸로 연속 회전' 기술 보유자로, 아버지 남해웅 명창의

해학 넘치는 재담과 함께 묘기에 가까운 줄타기 공연을 선보인다.

7월29일에는 무용 특집 '흐르다 깊어지다 넓어지다'를 공연한다. 전남도립국악단 무용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예술적 지향성을 집약해놓은 무대로, 깊은 사유에서 시작된 상상력으로 점철된 안무가 김유미의 연출과 류형선 예술감독의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음악이 더해져 긴장과 이완이 거듭되는 '춤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8월12일에는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의 흥행 프로그램, 국악으로 인문학하

기 시즌3 '당신이 답이다'를 개최한다. 첫 강연의 주인공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국민 역사교사'로 널리 알려진 한국사 일타 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 연구소 소장으로, 광복절 특집 '나와 당신의 오늘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란 주제로 관객을 맞는다.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당신이 답이다'는 인문학의 논리적 통찰과 전통예술의 감성적 통찰이 빛어내는 수준 높은 인문학 콘서트로, 시인 정호승과 작가 유시민 등의 강연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

도선인 기자

영화 '고인돌' 울산단편영화제 '대왕암상'

박기복 감독·화순고교생 주연
화순 고인돌 배경 러브스토리

화순군 고인돌을 배경으로 고대 인류의 삶과 사랑을 스크린에 옮긴 박기복(사진) 감독의 영화 '고인돌'이 지난 17일 제6회 울산단편영화제에서 지역영화대상 부문 우수상인 '대왕암상'을 수상했다.

영화 '고인돌'은 러닝타임 40분 동안 화순 고인돌을 매개로 슬픈 러브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박 감독이 지난해 화순고, 능주고, 전남기술과학고 등 3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시나리오 작법' 강의의 계기



로 만들어졌으며 배우 김장준, 박누리를 비롯해 화순고 3학년 학생 강윤주 양이 주연을 맡았다. 이외에도 고등학교 20여명이 영화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영화 '고인돌'은 지식강을 경계로 대립하는 태양 부족과 달 부족에 관한 이야기다. 태양 부족장의 딸과 달 부족장의 아들은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그 흔적은 오늘날 화순 고인돌로 남아 삶의 순환적 의미를 내포한다.

박 감독은 화순군 고인돌을 '선사시대(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역사)'로 불리기를 거부하고 엄연히 살아 숨 쉬는 유적과 건축양식의 고대 역사로 바라보기 희망하며 영화 '고인돌'을 제작했다.

박 감독은 "고대사의 확장성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영화감독서교류와 화합의 새 길을 영화로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영화 '고인돌'은 화순군, 전남대학교 인문학센터, 문화공간 나무와 숲, 순천팔마청백리 문화재단 김길영 이사장, 송재원, K에너지 신현민 대표, 주식회사 무진네오테크 조영동 대표 등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도선인 기자